

# 농어촌공사 김포지사, 청년농 의견수렴 및 농지지원사업 강화 방안 모색

김미숙 기자

승인 2025.02.26 14:51



한국농어촌공사 김포지사가 지난 20일 지사에서 청년농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.

간담회에는 각 지역을 대표하는 청년농업인과 유관기관 및 공사 담당자 등 총 11명이 참석해 청년농업인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어려움 청취와 청년농업인의 농지지원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했다.

김포지사는 「맞춤형농지지원사업」 및 「농지임대수탁사업」 등 농지은행사업을 통해 지난해 농가에 3.1ha를 지원하며 청년농의 영농 정착을 이끌고 있다.

올해부터는 청년농을 대상으로 선임대후매도사업,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사업 등 청년농업을 위한 농지지원의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, 농지 확보 등 초기자본 확보가 어려운 청년농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.

김태호지사는 “미래농업을 이끌어갈 청년농이 성공적으로 영농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.”라며 “이번 소통간담회를 계기로 농업의 더 큰 미래를 준비하는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다.”라고 말했다.

한편, 김포지사는 2월 17일부터 28일까지 ‘2025년 선임대-후매도사업\* 1차 지원 대상자를 모집했다.

자세한 사항은 농지은행포털([www.fbo.or.kr](http://www.fbo.or.kr)) 또는 농지은행상담센터(1577-7770)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.

\*선임대후매도사업: 청년농의 농지확보 부담 완화를 위하여 청년농이 농지를 장기 임차한 후 농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.

김미숙 기자 [mr@gimpo.com](mailto:mr@gimpo.com)

<저작권자 © 미래신문,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>

인쇄하기